

외국인노동자, 지역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가상현실(VR)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전국 9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VR)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전국 9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현황: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김해, 양산, 창원 등 9개소

외국인노동자는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하여 떨어짐, 부딪힘, 화재 등 산업현장의 다양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가상현실(VR) 안전체험은 언어사용이 최소화되고, 현장감 있는 영상 시청 또는 미션 수행 등을 통해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노동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 김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VR)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여 50여 종의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의 호응이 높아 나머지 8개 지원센터로 확대하게 되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전국 9개 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생활 적응, 우리나라 법령에 관한 교육과 및 각종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상현실(VR) 안전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작업수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VR 안전체험 사례>



<충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VR 안전체험시설>



※ 김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7월 VR 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음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책임자	과 장	김문실 (044-202-8990)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4-202-8885)
산하 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외국인전담팀	책임자	팀 장	박동인 (052-703-0275)
		담당자	차 장	박정열 (044-703-0276)